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시, 불교를 만나다

㉖ 조고각하(照顧脚下) : 고은의 '그 꽃'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효봉 선사 제자가 된 시인
시 통해 자기 성찰 수행자 태도 보여
'그 꽃'에 시선의 전환 깨달음 담겨

불교대학 법당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마음 쓰는 일이 있는데, 바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발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반듯하게 놓아 달라고 진행 요원에게 부탁하곤 한다. 이곳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발 하나 정리 못 하면서 무슨 마음공부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트러진다. 절이든 집이든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신발 정리가 몸에 밴 불자들은 법당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의 신발도 함께 반듯하게 놓는다. 신발 정리하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벗어 놓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발이 곧 마음인 셈이다. 절집에서 신발 벗는 일 또한 마음공부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인 댓돌을 종종 발견한다.

'조고각하(照顧脚下)'

글자 그대로 자기 발밑을 비추어 돌아보라는 뜻이다. 직접적으로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으라는 의미여서 사찰 공양간이나 선방, 법당 입구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간단하고 쉬운 일 하나 못하면서 자기 성찰 운운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을 읽다가 문득 조고각하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산에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는 아주 짧은 내용의 시다. 등산할 때는 시선이 위를 향하기 때문에 아래를 보기 어렵지만 하산할 때는 자연스레 발아래를 보게 된다. 아마 그때 시인의 눈에 꽃이 보였던 것 같다. 시인에게 작은 깨달음이 다가온 순간이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진다. 왜 산에 오를 때 우리의 시선은 위쪽을 향하는 것일까?

고은은 노벨문학상이 발표될 시기가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시인이었다. 수상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자들이 시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지만, 매번 예측과 기대는 엇나가고 말았다. 그 대신 2024년 한강 작가가 상을 받으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노벨문학상 작가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시인은 젊은 시절 출가해서 10여 년 동안 승려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당시 법명은 일초(一超)였는데, 통영 미래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曉峰, 1888~1966) 선사를 찾아가 제자가 된다. 선사는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고승이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다.

고은 시인은 1958년 조지훈과 서정주의 추천으로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폐결핵', '눈길'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게 된다. 1960년 첫 시집 〈피안감성〉을 출간한 이래 16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양의 저서를 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또한 그의 수많은 시집이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20여 나라에 번역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74년 심훈문학대상을 비롯해 만해문학상, 단재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등 명성에 걸맞게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 초빙교수 및 단국대 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 소개할 시 '그 꽃'은 2001년 출간한 〈순간의 꽃〉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는 "순간순간의 무궁 속에서 시인이 맛본 감응과 깨달음이 선(禪)과 시(詩)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타고 터져 나온다"고 소개한다. 시집에는 185편의 짧은 시들이 수록돼 있는데, 특이한 점은 모두 내용만 있을 뿐 제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 또한 제목이 따로 없어 대중에게 알려진 '그 꽃'이라 했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 그 꽃"

발밑을 보라

이 시를 읽으면서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내려갈 때 본 꽃을 오르면서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산을 오를 때 꽃을 보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의 시선이 정상이 있는 위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절대 가볍지 않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어른들이 말하곤 한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가면 취직이 목표로 바뀐다. 취직하고 나면 승진이, 승진하면 집 장만이, 그다음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목표 지점에 우뚝 서 있다.

이처럼 지금의 순간이 어떤 목표를 위한 과정뿐이라면, 그 당시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을 지나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말 못 할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우정을 쌓는 일 등 말이다.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목표 앞에서 이런 일들은 별거 아닌 것이 되고 만다. 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가로막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 취업을 위해 뭔가를 또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과정뿐인 현재를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주변에 핀 꽃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즉 조고각하다. 여기에서 발밑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멀리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송나라 때 고승으로 알려진 오조법연(五祖法演, 1024~1104)과 제자인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어느 날 오조법연이 제자들과 함께 캄캄한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초롱불이 꺼지게 됐다. 이때 공부가 얼마나 됐나 시험하고 싶었던 스승은 제자들에게 묻는다. 이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의 공부 밑천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때 원오가 스승에게 말한다.

"발밑을 살펴봐야 합니다[看脚下]."

단순하면서도 질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멋진 답변이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겠다는 수행자의 진솔한 태도가 느껴진다. 이처럼 발밑을 보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앞을 향하기 때문에 아래를 보기 어렵다. 그렇게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 오르다가 때론 발을 헛디딜 때가 있다. 그때 잠시 숨을 고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꽃이나 산이 눈에 들어온다. 쉼과 여유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고은의 시 한 편 감상해 보자.

"노를 젓다가 / 노를 놓쳐버렸다 /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앞서 소개한 〈순간의 꽃〉에 나오는 짧은 시다. 노를 저을 때는 노만 보였는데, 이를 놓치자 비로소 넓은 강이 눈에 들어왔다는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처럼 가끔은 노를 놓치거나 발을 헛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에 오르는 이유는 정상에 행복이라는 선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발밑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늘 분주하다. 이제 시선을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으로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 거기에 아름다운 '그 꽃'이 있으니 말이다. 몇 해 전 입적한 틱낫한 스님의 〈너는 이미 기적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 저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길에 행복이 있다는 지적이다. 발밑을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MZ들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 닿아 있다. 불투명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小確幸)'이 유행하고 있다.

집 장만이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어른들의 눈엔 안 좋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은 한 번뿐(You only live once)'이므로 미래보다 지금의 행복이 우선한다. 이른바 '욜로(YOLO)족'이라 불리는 세대의 인생관이다. 어쩌면 저 위가 아니라 발밑을 먼저 봐서 생긴 현상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발아래를 돌아보자. 행복이란 꽃이 활짝 웃으면서 거기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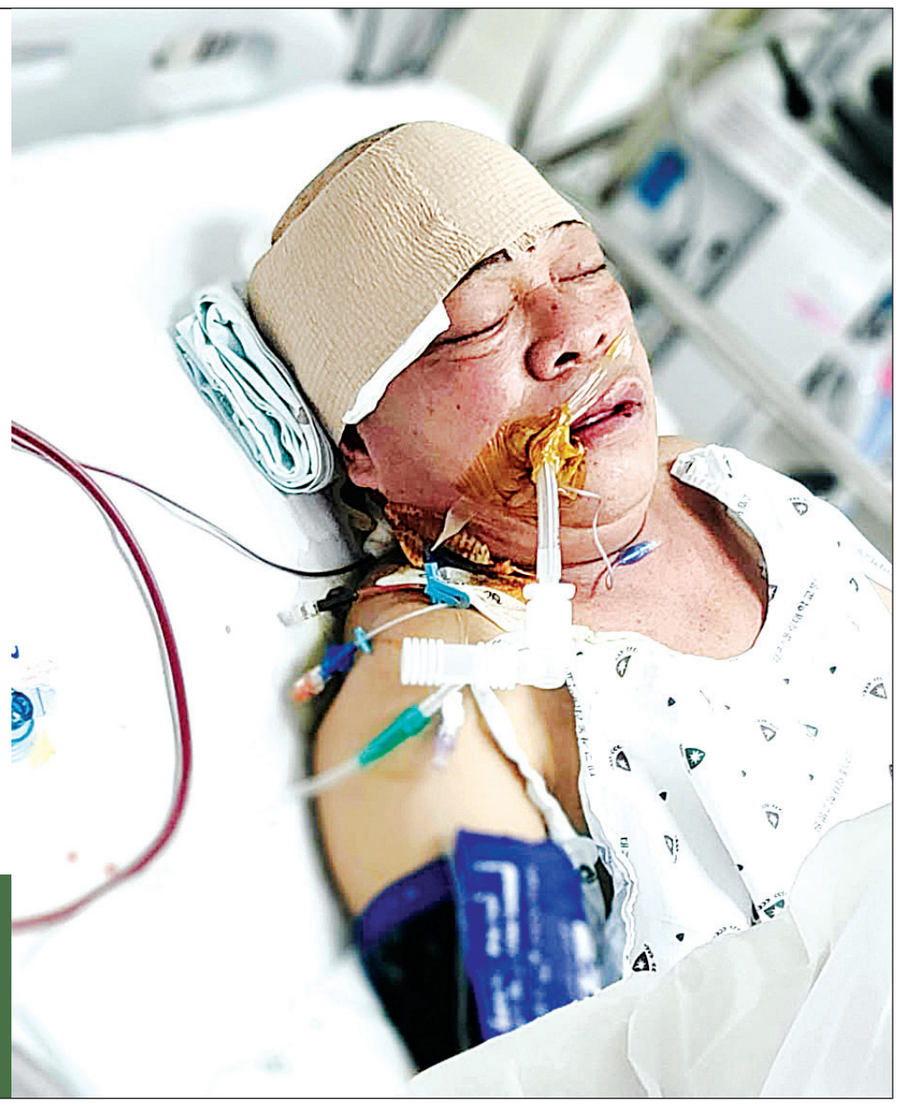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타국서 스러진 생명…
남은 병원비에 장례조차 막혀

거창 거주 건설 노동자 베트남 출신 따이 씨
뇌출혈로 두 번의 수술…끝내 의식 회복 못해
병원비 4600만 원 미납…시신 영안실 안치
장례 · 유해 이송 앞둔 가족들 "막막한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